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의 경어법

백 두 현

이 글은 구역인왕경에서 경어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구결자의 용법과 기능을 기술하기 위한 것이다. 본고에서 경어법이란 선어말어미에 의한 존대법(주체존대법, 겸양법 등), 조사나 활용어미에 의한 존대법을 포괄하는 용어로 쓴다.[1] 구역인왕경 석독구결에서 주체존대법은 선어말어미 '-ㅈ(시)-'에 의해 표현되고, 겸양법은 선어말어미 '-白(숩)-'에 의해 표현되며, 그밖에 존칭 호격조사 등으로 기능하는 '-下'(하)가 있고, 무정물 및 존칭 체언에 결합하여 속격조사로 쓰이는 '-ㄴ'(人)이 있다. 구역인왕경의 석독구결에 사용된 이 네 가지 통사적 기능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

* 경북대학교

1) 본고에서 '경어법'은 '존대법'보다 넓은 개념으로 쓴다. 즉 주체존대, 청자(상대)존대, 겸양법은 물론 조사에 의한 존대, 어휘에 의한 존대 등을 두루 일컫는 명칭으로 '경어법'을 쓰고자 한다. 그런데 석독구결에서 청자존대법을 보여 주는 형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박진호(1998)는 석독구결의 청자존대법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하였다. 본고에서는 청자존대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다.

1. 주체존대법 '-ㅭ(시)-'

1.1 주체존대법 '-ㅭ(시)-'의 쓰임

주체존대법은 존대의 대상이 문장 주어로 쓰일 때 그 주어를 높이기 위해 서술어의 어간에 '-ㅭ(시)-'가 통합됨으로써 표현된다. '-ㅭ(시)-'가 주체존대의 기능을 가짐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이 형태가 쓰인 구문 중 관심을 끄는 몇 가지를 가려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爾ᄂᆞᆫ 時ᅀᅡ 十號ㅣᄉᆞᆷ 三明ㅣᄉᆞᆷ 大滅諦ㅣᄉᆞᆷ 金剛智ㅣᄉᆞᆷ ᄉᆞᄆᆞᆫ 釋 迦牟尼佛ᄭᅴ 年ᄋᆡ 初ᄒᆞᄅᆞᆫ 月ᄒᆞ 八日ᄋᆞᅀᅡ 方ᄒᆞ 十地ᄋᆞᅀᅡ 坐ᄉᆞᄆᆞᆫ下(舊仁 2:10-11)

이 문장은 관형절을 가진 복합문으로, 관형절의 서술어는 '金剛智ㅣᄉᆞᆷᄉᆞᄆᆞᆫ'이고, 모문의 서술어는 '坐ᄉᆞᄆᆞᆫ下'이다. 이들의 주어는 모두 '釋迦牟尼佛'이며, 각각의 서술어에 통합한 '-ㅭ-'가 주어를 높이는 표지이다. 관형절의 서술어 '金剛智ㅣᄉᆞᆷᄉᆞᄆᆞᆫ'를 보면 '-ㅭ-'가 계사 '-ㅣ(이)-'에는 붙지 않고 후행 동사 'ᄉᆞ-'에만 통합함을 알 수 있다. 존칭 주어의 동작을 표현하는 서술어가 중복될 때 마지막 서술어에 '-시-'가 통합하는 것이다.

(2) 量 無ᄒᆞᆫ 菩薩ᄉᆞ 比丘ᄉᆞ 八部ᄉᆞᄉᆞᆷᄒᆞ 大衆ㅣ 有ᄂᆞᄒᆞᄉᆞᄆᆞᆫ下 各ᄀᆞ各ᄀᆞᄒᆞ 寶蓮花ᄋᆞᅀᅡ 坐ᄉᆞᄆᆞᆫᄀᆞᆺ (舊仁 2:04)

이 문장은 한 주어에 두 개의 서술어가 연결된 복합문인데 주어는 '菩薩·比丘·八部 大衆'이며, 서술어는 '有ᄂᆞᄒᆞᄉᆞᄆᆞᆫ下'와 '坐ᄉᆞᄆᆞᆫᄀᆞᆺ'이다. 서술어에 붙은 '-ㅭ-'가 높임의 표지 즉 주체존대의 선어말어미이다. 문장의 주어에 직접 통합하여 주어를 높이는 존칭의 주격조사는 석독구결에 나타나지 않는다. '有ᄂᆞᄒᆞᄉᆞᄆᆞᆫ下'에 통합한 '-ᄂᆞ-'를 '-ㅭ-'보다 등급이 낮은 주체존대의 하나로 보는 견해도 있다(李丞宰 1996). 그러나 이렇게 보면 복합문에서 동일한 주어에 걸리는 두 개의 서술어 '有ᄂᆞᄒᆞᄉᆞᄆᆞᆫ

下'와 '坐ソニカ'가 서로 다른 존대 등급으로 나타난다는 문제점이 있다. '有ナハニ下'의 '-ナ-'는 서법 관련 형태로 봄이 좋을 것이다.[2]

(3) 爾ヒソ丁 時十 大王丁 復ソ丁 ㉠起ソ氵 作禮ソ白ロ 佛十 白氵 ㉡言ニ尸 世尊下 一切 ㉢菩薩丁 云何ヒソ丁し 佛果し ㉣護ソ夕 云何ヒソ丁し 十地ヒ 行し 護ノ个ヒ 因緣リ丨ソロろ个ろ(舊仁 3:22-23)

하나의 주어(大王丁)를 가진 복합문에서 여러 개의 동사 서술어가 연결될 때, 선행하는 동사(㉠起ソ氵 作禮ソ白ロ)에는 '-ニ-'가 붙지 않고, 맨 끝에 오는 동사(㉡言ニ尸)에 '-ニ-'가 결합하는 모습을 (3)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점은 현대국어에서도 동일하다. 굵은 글씨로 표시한 '世尊下'는 대왕이 세존을 존칭 호격으로 부른 것인데 대왕과 부처(세존)는 상호 존칭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과 ㉣의 관계에서 보듯이 보살이 주어일 때는 '-ニ-'가 결합하지 않았다.

(4) 佛十 白氵 言ニ尸 云何ヒ氵 十方ヒ 諸ニ丁 如來氵 一切菩薩氵ノ干 文字し 離 不多ソ氵 而灬 諸丁 法相氵十 行ソニ亡ヒ丨ソロろ个ろ (舊仁 15:21-22)

이 문장은 부처와 대왕(波斯匿王)간의 대화 중에서 대왕이 부처에게 하는 질문이다. 상위문의 서술어인 '言ニ尸'의 주어는 문면에 나타나지 않은 '대왕'이고, 하위문의 서술어인 '行ソニ亡ヒ丨'의 주어는 '如來'와 '一切菩薩'이다. 부처보다 상대적으로 하위자라 할 수 있는 '대왕'의 동작 '言ニ尸'에 '-ニ-'를 붙인 것은 이 문장의 화자(현토자)가 '대왕'을 존대의 대상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이 점은 바로 앞의 문장에서도 같

2) '有ナハニ下'의 'ナ'를 '有'의 어간 표기자로 보려는 견해도 있으나 'ハ'가 어간에 직접 통합한 예가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1.2절 참고.

다) 이 문장 뒤에는 부처가 대왕에게 답하는 다음 문장이 이어진다.

(5) 大王下 法輪ㅣㅅ ᄂᆞᆫᄃᆞ 者法本如ㅣᄀᆞᆫ 重誦如ㅣᄀᆞᆫ 授記如ㅣᄀᆞᆫ(舊仁 15:22)

'-下'는 이른바 존칭 호격의 '-하'를 나타낸 것인데 부처가 상대방을 '大王下'라고 부른 것은 부처의 처지에서 '대왕'을 존대한 것이 된다. 한편 구역인왕경에 쓰인 '大衆'은 그 지시 대상이 다양하며 다음 문장에서 보듯이 존대의 대상이 되어 있다.

(6) 時十 諸ㄱ ㉠ 大衆ㄱ ⓐ月光王ㅣ 十四王ㅅ 量 無ᄒᆞᆫ 功德 藏ㄴ ⓐ´ 歎ᄉᆞᆫᄐᆞᄅᆞᆫᄃᆞ ㉠´ 聞白ᄅᆞᄉᆞᆫᄃᆞ 大法利ㄴ ㉠″ 得ᄇᆞᄒᆞᆫᄃᆞ (舊仁 11:14-15)

이 문장에서 내포문의 서술어인 ⓐ´ '歎ᄉᆞᆫᄐᆞᄅᆞᆫᄃᆞ'의 주어는 ⓐ '月光王'이고, 대등문으로 구성된 모문의 두 서술어인 ㉠´ '聞白ᄅᆞᄉᆞᆫᄃᆞ'과 ㉠″ '得ᄇᆞᄒᆞᆫᄃᆞ'의 주어는 ㉠'大衆'이다. '聞白ᄅᆞᄉᆞᆫᄃᆞ'에서는 '月光王'에 대한 '대중'의 겸양이 '-白-'에 의해 표현되었지만 여기에 '-ᄉᆞ-'는 붙지 않았다. '-白ᄉᆞ-'가 되면 극존칭이 되는데 '大衆'은 결코 극존칭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한 문장에서 '-ᄉᆞ-'가 중첩된 예를 검토해 보자.

(7)

a. 次第ᄫᅳ 居士ㅣᄉᆞᄆᆞ 寶ㅣ 蓋ㅣ 法ㅣ 淨名ㅣᄉᆞᆫᄆᆞ 等ᄉᆞᆫᄀᆞ 八百人ㅅㅜᆨ 問ᄉᆞᆫᄃᆞ (舊仁 3:01-02)

b. 復ᄉᆞᆫᄀᆞ 須菩提ㅣ 舍利佛ㅣᄉᆞᆫᄆᆞ 等ᄉᆞᆫᄀᆞ 五千人ㅅㅜᆨ 問ᄉᆞᆫᄃᆞ(舊仁 3:02)

c. 復ᄉᆞᆫᄀᆞ 彌勒ㅣ 師子吼ㅣᄉᆞᆫᄆᆞ 等ᄉᆞᆫᄀᆞ 十千人ㅅㅜᆨ 問ᄉᆞᆫᄃᆞᄉᆞᆫᄀᆞᆯᄊᆡ 能ᄋᆞᆺ 答ᄉᆞᆫᄃᆞᄉᆞᆸᄀᆞᆫ 者 無ᄒᆞᆫᄇᆞᄒᆞᆫᄃᆡ (舊仁 3:02-03)

a 문장의 전후 맥락을 검토해 보면 a에서 숨은 주어는 波斯匿王이다. 이 문장에는 세 개의 서술어에 '-ㅅ-'가 통합되어 있는데 서술어마다 그 주어가 다르다. '居士ㅣㅅ尸'의 주어는 뒤에 나오는 '八百人'이고, '問ㅅ가'의 주어는 문맥 속에 숨은 '波斯匿王'이다. 또 하나의 서술어라 볼 수 있는 '等ㅅㅋㄱ'에 '-ㅅ-'가 붙은 점은 특이하다. 의역해 보면 '보와 개와 법과 정명이라 하는 것 등과 같으신 팔백사람에게 물으시며'과 같이 '같으신'에 '等ㅅㅋㄱ'이 대응한다. 이렇게 보면 '等ㅅㅋㄱ'의 '-ㅅ-'는 '八百人'을 높이기 위해 붙인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문장의 순서가 a 다음에 b, b 다음에 c문장이 나오는데 b,c의 모문 서술어 '問ㅅ가'의 주어는 문맥 속에 숨은 '波斯匿王'이다. '等ㅅㅋㄱ'은 내포문의 주어인 '五千人'과 '十千人'에 호응하는 서술어 기능을 한다. 모문의 주어와 내포문의 주어 모두 존대의 대상으로 인식한 결과 '等ㅅㅋㄱ'에 '-ㅅ-'가 쓰인 것이다. c에서 '答ㅅㅋ仝七'와 '無七ㅌ八ㅋㅣ'의 표면상 주어는 '者'이나 이것은 의미상 '八百人', '五千人', '十千人' 모두를 가리킨다. c는 한 문장에 쓰인 4개의 서술어에 모두 '-ㅅ-'가 통합되어 있는 예문이다.

(8)

a. 大寂室三昧ㅈ十 入ㅅㅋㅅㄱ 緣し 思ㅅㅈ尒 大光明し 放ㅅㅈ 三界七 中し 照ㅅㅌ八ㅋ가 (舊仁 2:11-12)

b. 今日ㅈ十 如來ㅣ 大光明し 放ㅅㅋㅌㄹㄱ ㅇㄱ 斯毛ㅅ巴ㅅ 何七ㅅㄱ 事し 作ㅅㅌㅓㅅㅋㅌㄱㅣㅈㅌㅁㅅㅌ八ㅋ가(舊仁 2:23- 24)

(8) a 문장의 주어는 '석가모니불'이고 b의 주어는 '여래'이다. a문장에서 주어가 같은 4개의 동사 중 첫째와 마지막 동사에는 '-ㅅ-'가 쓰였으나 '思ㅅㅈ尒'과 '放ㅅㅈ'에는 '-ㅅ-'가 통합되지 않았다. 이 두 예는 동사 'ㅅ-'에 어미 '-ㅈ'가 결합한 것인데 석독구결에서 '-ㅈ' 앞에는 '-ㅅ-'가 통합되지 못한다(후술 4.4절 참고). a의 '入ㅅㅋㅅㄱ'은 특이한 예이다. '入ㅅㅋㅅㄱ'은 '-ㅅ-'가 마치 어말어미처럼 쓰인 것이다. '-ㅅ-'

뒤에 연결어미 없이 곧바로 동사 'ン-'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3] '-ニ-' 뒤에 '-ト'가 생략된 표기일 가능성도 있으나 일단 나타난 그대로 기술해 둘 수밖에 없다. b는 '-セ彳' 앞에서도 '-ニ-'가 통합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1.2 '-ハニ-'에 대하여

구역인왕경의 구결토 중 가장 난해하고도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가 '-ヒハニ-', '-ロハニ-', '-ラハニ-', '-ムハニ-', '-ナハニ-'와 같은 구성이다. '-ニ-'가 '-ハ-'에 後接할 때 '-ハ-' 앞에는 선어말어미 '-ロ-', '-ラ-', '-ヒ-', '-ム-', '-ナ-' 중의 하나가 반드시 선행한다.

이승재(1991)는 향가의 '遣只賜'와 석독구결의 '-ロハニ-'를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것의 형태적 기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역인왕경에는 '-ハニ-'가 포함된 다섯 가지 형식이 모두 나타난다. 다만 '-ナハニ-'는 '有' 뒤에 붙어 있어 '-ナハニ-'의 'ナ'를 '有'의 훈독자로 볼 여지도 있으나 금광명경의 '中ラナンナハニフ ユ'(3;13:18)에 'ンナハニ-'가 나타나므로 어미 통합체로서 '-ナハニ-'를 설정할 수 있다. 백두현(1995, 1.3절)에서 '-ハニ-'류 어미들이 보여 주는 통합관계상의 특징을 기술하고 '-ヒハニ-', '-ロハニ-', '-ムハニ-'에 쓰인 '-ヒ-', '-ロ-', '-ム-'의 의미 기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백두현(1997 : 91)에서 석독구결의 선어말어미 '-ヒ-', '-ロ-', '-ム-' 등의 대립체계를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ハニ-' 앞의 선어말어미 '-ラ-' '-ム-', '-ロ-', '-ナ-', '-ヒ-'는 분포상 상보적인 것처럼 보이는 점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동일 문법형태의 이형태로서 상보적 분포를 보인 것은 아니므로 이 다섯 가지 선어말어미가 하나의 문법범주에서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백두현 1997 : 77). 즉 '-ラハニ-', '-ロハニ-', '-ムハニ-', '-ナハニ-', '-ヒハニ-'라는 형식을 모두 같은 문법 차원에서 서로

3) '得ニンフ'(舊仁 03:13)도 같은 예이다.

대립된 형식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ㅋㅅㄴ-'는 '-ㅿㅅㄴ-'와 대립되고, '-ㅏㅅㄴ-'는 '-ㅔㅅㄴ-'와 대립되는 구성일 가능성이 높다. 상위의 문법 차원에서 이들 부류가 어떤 대립관계를 이룬 것인지 앞으로 밝혀야 할 과제이다. 그런데 '-ㅁㅅㄴ-'는 어떤 형식과 대립된 것인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ㅅㄴ-'에 쓰인 '-ㄴ-'는 다른 어미통합체에 쓰인 '-ㄴ-'와 같이 주체존대 기능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ㅅㄴ-'의 'ㅅ'는 그 통사론적 기능이나 분포 관계로 보아 존재동사적인 특성을 내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4]

2. 겸양법 선어말어미 '-白(숩)-'

15세기 국어의 '-숩-'의 의미기능에 대한 논의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안병희(1982)는 여러 학설을 재음미하고 "중세국어의 겸양법은 客語가 主語보다 上位者인 동시에 話者보다도 上位者일 때, 그 객어에 지배되는 동사에 사용되는 경어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구역인왕경과 금광명경에 쓰인 '-白-'의 용례 중 일부는 종래의 어떤 견해로도 설명되지 않는 점이 있다. 즉 '-白-' 중 일부는 문장 속의 객어와 관련되지 않고, 話者(懸吐者)와 주어의 관계를 고려해야만 설명될 수 있는 특이한 용법이 나타난다. 이러한 '-白-'의 기능을 중심으로 그 기능을 설명해 보기로 한다.[5]

---

4) 김영욱(미발표 원고)은 'ㅌㅅㄴ'(ᄂᆞ기시)를 '-ᄂᆞ+ㄱ#이시-'로 분석하고 'ㅅ'가 두 가지 형태 'ㄱ'과 '이시-'의 '이'를 동시 나타낸 글자로 보았다. 즉 'ㅅ'는 단일 형태의 구결자가 아니라 두 개의 형태로 분석되는 글자로 본 것이다. 이런 견해는 'ㅅ'에 대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5) '-白-'의 기능에 대한 아래의 논의는 백두현(1995)에서 기술한 내용 중 구역인왕경과 관련된 것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2.1 15세기의 '-숩-'과 동일한 기능의 '-白-'

먼저 15세기의 '-숩-'과 같은 통사적 특징을 보여 주는 '-白-'의 몇 예를 살펴 보자.

(9)

a. 如來ㅅ 三業ㄱ 德ㅣ 無極ᄒᆞ오ᄆᆞ로ᄆᆞᆫ 我ㅣ尸 今ᄒᆞ ㉠月光ㄱ ㉡三寶ᄅᆞᆯ ㉢禮ᄒᆞ白ᄋᆞᄫᆞᄅᆞᄐᆞᆯ(舊仁 11:08)

b. 天尊ㄱ 快ᄒᆞ 十四王ᄃᆞᆯᄒᆞᆯ ᄉᆞᆯᄫᆞᄆᆞ로ᄆᆞᆫ 是ㅣ 故ᇙ ㉠我ㄱ 今ᄒᆞᆫ 略ᄒᆞ ㉡佛ᄅᆞᆯ ㉢歎ᄒᆞ白ᄋᆞᄫᆞᄅᆞᄒᆞᆫ ᄂᆞᆫᄒᆞᄆᆞ로ᄆᆞᆫ (舊仁 11:13)

c. ㉠六方ᄃᆞᆯ ᄒᆞᆫᄀᆞᆺ刀 亦ᄒᆞᆫ 復ᄒᆞ 共ᄒᆞ 量 無ᄒᆞᆫ 音樂ᄅᆞ 作ᄒᆞᆫ ㉡如來ᄅᆞ ㉢覺寤ᄒᆞᆫᄂᆞᆯ白ᄋᆞᄫᆞᄅᆞᄒᆞᆫ 佛ㄱ 卽ᄒᆞ 時ㅣ ᄀᆞᆺᄒᆞᄅᆞㄱ ᄋᆞᄅᆞ 知ᄂᆞᆫᄀᆞ 衆生ᄒᆞᆫ 根ᄅᆞ 得ᄂᆞᆫᄒᆞᆫ 卽ᄒᆞ 定ᄅᆞ 從ᄒᆞ 起ᄒᆞᄂᆞᆫ下 (舊仁 3:12-13)

d. 爾ᄒᆞᆫᄒᆞᆫ 時十 ㉠大王ㄱ 復ᄒᆞᆫ 起ᄒᆞᆫᄃᆞᆯ ㉢作禮ᄒᆞᆫ白ᄋᆞᄫᆞ ㉡佛十 白ᄃᆞᆯ 言ᄂᆞᆫ尸 世尊下 一切 菩薩ㄱ 云何ᄒᆞᆫᄒᆞᆫᄀᆞᄅᆞ 佛果ᄅᆞ 護ᄒᆞᆫᄀᆞ 云何ᄒᆞᆫᄒᆞᆫᄀᆞᄅᆞ 十地ᄒᆞ 行ᄅᆞ 護ᄂᆞᆺᄉᆞᄒᆞ 因緣ㅣㅣᄒᆞᆫᄋᆞᄆᆞ로ᄆᆞᆺᄉᆞᄅᆞ (舊仁 3:22-23)

각 예문에서 ㉠은 주어이고, ㉡은 객어, ㉢은 '-白-'이 포함된 서술어이다. '-白-'은 존대의 대상인 객어에 대한 겸양을 표현하는 것(또는 객어를 높이는 것)임을 위에서 잘 알 수 있으며 이런 구문은 15세기의 경우와 일치한다. 15세기의 '-숩-'과 일치하는 '-白-'의 모습은 화엄경의 구결문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2.2 특이한 용법을 보여 주는 '-白-'

다음은 석독구결의 '-白-'이 15세기의 '-숩-'과는 다른 용법을 보여 주는 예에 대해 살펴 보자.

2.2.1 부처의 동작을 묘사한 서술어에 쓰인 '-白-'

(10)

a. (釋迦牟尼佛ㄱ) 復ㅅㄱ [於]頂上ㅋ ㅓㅅㅋ 千寶蓮花ㄴ 出ㅅ白ㅎㄱㅁ 其花ㄱ 上ㅅㄱ 非想非非想天ㅋ ㅓ 至ㅎ 光ㄱ 亦ㅅㄱ 復ㅎ 爾ㅌㅎㅅㄴㅋ(舊仁 2:12-14)

b. (佛ㄱ) 方(ㅌ) 蓮花師子座上ㅋ ㅓ 坐ㅅ白ㅎㄱㅁ 金剛山王 如ㅣㅅㅁㅏㄴㄱ(舊仁 3:13-15)

c. 法王ㄱ 上 無ㅌㅋ 人中ㅋㅌ 樹ㅢㄴㄷ 大衆ㄴ 覆蓋ㅅ白ㅎㄷㅁ 量 無ㅌㄱ 光ㅱㅅㄴㅋ(舊仁 11:09)

d. (法王ㄱ) ㅁㅋ ㅓ 常ㅢ 說法ㅅ白ㅎㄷㅁ 無義ㅅㄱ ㅇㅣㅅㄷ 非ㅈㅅㄴㅋ 心智寂滅ㅅㄴㄷ 緣 無ㅌㅢ 照ㅅㄴㅁㅣㅋ(舊仁 11:10)

e. 幻諦ㅌ 法ㄱ 佛ㅢ 出世ㅅ白ㅎㄷ 無ㅌㄴㄱㅌㅌ 前ㅋ ㅓ 名字 無ㅌㅎ 義ㅌ 名 無ㅌㅎㅅㅋ(舊仁 14:02-03)

f. 大王ㄷ 是ㅢ 故ㅱ 佛佛ㅢ [於]世ㅓ 出現ㅅㄴㄷ 衆生ㅣ 爲ㅅㅅㄴㄷㅇㅱ 故ㅅ 說ㅋㅛ 三界ㅣ 六道ㅣㅅㅎㅌ 名字ㄴ 作ㅅ白ㅎㄱㅣㄴ 是ㄴ 名ㅋ 無量 名字ㅣㅅㅎㄱㅣ(舊仁 14:05-06)

(10)의 예문들에서 주어가 '釋迦牟尼佛', '佛', '法王'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모두 '부처'를 지시한다는 점은 같다. 부처의 동작을 묘사한 서술어에 '-白-'이 쓰인 것은 15세기 '-숩-'의 용법과 아주 다른 점이다. (10)a의 '出ㅅ白ㅎㄱㅁ'의 행위 주체는 '釋迦牟尼佛'인데도 겸양법의 '-白-'이 쓰였고, (10)b의 '坐ㅅ白ㅎㄱㅁ'와 (10)d의 '說法ㅅ白ㅎㄷㅁ', (10)e의 '出世ㅅ白ㅎㄷ'이 모두 그러한 경우이다. (10)의 밑줄친 모든 서술어에 쓰인 '-白-'은 '-ㅅㅅ-'로 대치되어야 15세기의 문법과 일치한다.

(10)f는 주어가 '佛佛'이다. 이 주어의 서술어로서 선행절에 쓰인 '出現ㅅㄴㄷ' 및 '爲ㅅㅅㄴㄷㅇㅱ'에는 존대의 '-ㅅㅅ-'가 통합되었으나, 후행절의 서술어 '作ㅅ白ㅎㄱㅣㄴ'에는 겸양의 '-白-'이 통합되었다. 15세기의 문법으로 본다면 '作ㅅ白ㅎㄱㅣㄴ'은 '作ㅅㅅㅎㄱㅣㄴ'이 되어야 맞다. 이 '-

白-'을 목적어 '名字し'에 대한 겸양을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부처가 이런 불교 용어에 대해 겸양한다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 점은 (10)c의 경우도 같다. 주어 '法王'의 선행절 서술어 '樹リニ下'에서는 '-ニ-'를 써서 존대하였고, 후행절 서술어 '覆蓋ン白ろ尸ム'에는 겸양법의 '-白-'을 썼다. 목적어 '大衆し'은 부처가 겸양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 점은 (10)f에서도 같다.[6]

'-白-'이 마치 '-ニ-'처럼 기능하는 (10)의 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ニ-'가 통합되어야 할 자리에 '-白-'이 통합된 (10)의 활용형들은 형태론적으로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이 주목된다. (10)에서 '-白-'을 포함하고 있는 활용형 '出ン白ろ丁ム', '說法ン白ろ尸ム', '作ン白ろ丁し' 등은 모두 '-ろ尸-' 또는 '-ろ丁-'을 공유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ろ尸-'과 '-ろ丁-'의 '-尸-', '-丁-'은 기원적으로는 동명사형 어미라는 점에서 공통적 성격을 가진다. (10)a-d의 '-ろ丁ム'와 '-ろ尸ム'는 설명형의 연결어미이고, (10)e-f의 '-ろ尸'과 '-ろ丁し'은 동명사형 어미이다. 동명사형 '-ろ尸-'과 '-ろ丁-'을 지닌 활용형에 특이한 기능의 '-白-'이 통합된 점이 흥미롭다.

둘째, (10)과 같은 특이한 '-白-'의 쓰임은 구역인왕경에 특히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華嚴經에서는 (10)과 같은 예를 찾을 수 없고, 金光明經에서 4개례, 유가사지론에서 1개례를 찾을 수 있었다.[7] 그러나 華嚴經에서의 '-白-'은 그 용법이 15세기의 그것과 일치하며 매우 정제된 모습을 보여 준다.

---

6) 금광명경과 유가사지론에도 이러한 예가 나온다. 구체적인 예는 백두현(1995)을 참고.

7) 금광명경과 유가사지론에 나오는 '-白-'의 특이한 용법의 예와 이에 대한 분석은 백두현(1995)을 참조.

2.2.2 부처가 스스로의 행위를 겸양한 것

(11)

a. 汝ㄱ 今ᄉᆞᆫㄱ 聽ㄴᄃᆞ 無ㄴᆞᆫ가 我ㄱ 今ᄉᆞᆫㄱ 說ㄴᄃᆞ 無ㄴᆞᆫ白ᄒᆞᄅᆞㅣ (舊仁 14:21)

b. 善男子ᄋᆞ 其 說白ᄒᆞᄅᆞㄱ 所ㄴ 十四般若波羅密ㅣㄱ 三忍ᄉᆞ 地地ᄋᆞ十 上中下ᄒᆞᄉᆞᆫㄱ 三十忍ᄉᆞㄴᄃᆞ 一切[…] (舊仁 11:24-25)

c. 佛ㄱ ……實天衆ᄒᆞ十 告ᄒᆞᄃᆞ 善男子ᄋᆞ 是ㅣ 月光王ㄱ 已ᄉᆞ [於]過去ㄴ 十千劫ㄴ 中ᄋᆞㄴ 龍光王佛法ㄴ 中ᄋᆞ十ᄉᆞᆫᄋᆞ 四住ㄴ 開士ㅣᄃᆞ [爲]のしᄉᆞㅣナㄱし 我ㄱ 八住ㄴ 菩薩ㅣᄃᆞ[爲]のしᄉᆞㅣハ白ᄒᆞᄅᆞㄱのᄆ 今ᄉᆞᆫㄱ [於]我ᄒᆞ 前ᄋᆞ十ᄉᆞᆫᄋᆞ 大師子吼しᄉᆞナトㅣ (舊仁 11:20-22)

d. 吾ㄱ 今ᄉᆞᆫㄱ 先ᄋᆞ 諸ㄱ 菩薩 爲ᄉᆞᄒᆞ 佛果し 護ノᄉᆞㄴ 因緣ᄉᆞ 十地ㄴ 行し 護ノᄉᆞㄴ 因緣ᄉᆞノし 說白ᄒᆞᄅᆞᄒᆞㄴㄴㅣ (舊仁 3:18-19)

(11)a는 발화 주체가 부처이다. 문장 속의 '我ㄱ'는 바로 부처 자신을 가리킨 말이다. '汝ㄱ'는 月光王(波斯匿王)이다. 부처가 스스로 자신의 동작을 표현한 '說ㄴᄃᆞ 無ㄴᆞᆫ白ᄒᆞᄅᆞㅣ'에 '-白-'을 쓴 것이다. 最高位者인 부처가 스스로의 동작에 겸양법을 쓴다는 것은 특이한 것이 아닐 수 없다. (11)b의 발화 주체는 부처이고 '說白ᄒᆞᄅᆞㄱ'의 주어는 생략되어 있는 '佛'이다. '說白ᄒᆞᄅᆞㄱ'도 부처의 동작을 묘사한 서술어인데 '-白-'이 통합되었다. (11)c의 밑줄친 주어 '佛ㄱ'과 '我ㄱ'은 지시 대상이 동일하고, 이 주어의 서술어 '菩薩ㅣᄃᆞ [爲]のしᄉᆞㅣハ白ᄒᆞᄅᆞㄱのᄆ'에도 역시 '-白-'이 통합되었다. (11)d의 '吾ㄱ'은 부처 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며 자신의 행위를 서술한 서술어 '說白ᄒᆞᄅᆞᄒᆞㄴㄴㅣ'에 겸양법의 '-白-'을 썼다. (11)의 구문은 앞의 (10)의 구문과 통사적 공통성을 갖지 않는다.

2.2.3 제3자가 부처에게 하는 행위를 부처 자신이 말하면서 그 행위동사에 '-白-'을 쓴 것

(12)

爾七ソ丁 時十 佛丁 大衆ヲ十 告ソニア 十六大國王リ 意ミ十 國土し 護ノ仝七 因緣し 問白[欲]ムソニトろ丁のし 知白ミロろ丁ミソ丁乃(舊仁 3:17-18) (이 때 부처님이 대중에게 이르시되 "十六大國王이 마음 속으로 國土를 지킬 인연을 (나에게) 묻고져 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12)에서 상위문의 주어는 '佛丁'이고 그 서술어는 '告ニア'이다. 하위문의 주어는 '十六大國王'이고 그 서술어는 '問白[欲]ムソニトろ丁のし'이다.[8] 이 서술어에 '-白-'이 통합된 이유는 '問'이라는 행위가 佛을 지향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묻는' 행위는 '十六大國王'이 佛을 대상으로 한 동작이므로 '-白-'은 佛에 대한 겸양을 표현하기 위해 쓰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하위문의 발화 주체가 '佛'이라는 점이다. (11)은 佛이 스스로의 동작에 겸양 표현을 쓴 것임에 비하여 (12)는 남이 佛에게 한 행위를 佛 자신이 말하면서 겸양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런 발화 장면에서 '-白-'이 쓰인 현상을 통사론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2.2.4 특이하게 쓰인 '-白-'의 기능에 대한 해석

(10)(11)(12)를 함께 묶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원인을 생각해 보자. (10)(11)(12)는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15세기의 '-숩-'이 지닌 기능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8) '知白ミロろ丁ミソ丁乃'의 주어는 '佛'이다. 따라서 이 예는 부처 자신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겸양한 (11)의 예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白-'의 쓰임, 특히 (11) (12)는 舊譯仁王經에 많이 나타난다. 구역인왕경의 현토자가 '-白-'의 용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지 못하여 이와 같은 혼란이 생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는가. 구역인왕경뿐 아니라 많지는 않지만 金光明經과 瑜伽師地論에도 이런 예가 나타난 사실도 중시되어야 한다.

필자는 높임 자질이 화용론적 원리에 의해 결정되며 화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유동석 1993 : 381)을 이용하여 (10),(11),(12)에 나타난 '-白-'의 특이한 용법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과 같이 부처의 동작을 묘사한 서술어에 '-白-'을 쓴 현상은 문장 서술자(즉, 懸吐者)가 부처의 동작을 겸양의 대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주어(佛)의 동작을 표현하는 서술어에 주체존대법의 '-ニ-'를 통합한 것은 통사론적 원리에 의한 존대법이다. 이에 비하여, 주어(佛)의 동작을 표현하는 서술어에 겸양법의 '-白-'이 통합된 것은 주어 '佛'에 대한 현토자의 겸양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화용론적 원리에 의한 존대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10)과 같은 '-白-'의 쓰임은 겸양해야 할 대상에 대한 懸吐者 자신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화용론적 원리를 적용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懸吐者는 주어 '佛'이 행하는 동작을 겸양의 대상으로 인식했던 것이다.[9]

(11)과 같이 부처 자신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겸양한 현상도 통사론적으로는 설명해 낼 도리가 없다. 통사론적으로 볼 때 (11)의 문장에

---

9) 문장의 주어가 佛이 아니면서도 그 서술어에 '-白-'이 통합된 예가 있다.

他方ヒ 大衆ミ 及ハ 以ホ 化衆ミ 此リ 三界ヒ 中ヨヒ 衆ミノ尸 十二大衆ア 皆ヒ 來ヨホ 集會ソヨ 九劫蓮花座ヨ十 坐ソ白ラ アム 其會ヒ 方廣ア 九百五十里リアレ 大衆リ 僉然ナ 而ヤ 坐ソヒハニイ (舊仁 02:07-9)

서술어 '坐ソ白ラアム'에 '-白-'이 통합된 것은 현토자가 이 문장의 주어인 '十二大衆'을 겸양의 대상으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이 '十二大衆' 속에 높여야 할 존귀한 인물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이 문장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다.

서 겸양의 대상을 찾을 수 없다. 가장 높임을 받는 존대의 대상인 부처가 스스로의 행위를 겸양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11)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도 (10)과 동일한 화용론적 원리로 설명되어야 한다. 懸吐者가 佛의 동작에 대해 겸양을 표현하기 위해 佛의 행위를 묘사한 서술어에 '-白-'을 통합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석독구결의 '-白-'을 객체존대법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겸양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필자가 '-白-'에 대해 '겸양법'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白-'이 가진 특이한 기능을 염두에 둔 것이다.

(12)는 다른 인물이 佛에게 하는 행위를 묘사한 서술어에 '-白-'을 통합한 것인데 發話者는 佛 자신이다. 다른 인물이 佛에게 한 행위를 佛 자신이 말하면서 겸양법을 쓴 것이다. 여기에서도 경어법에 관련된 인식의 주체는 佛이나 다른 인물이 아니라 懸吐者이다. '묻는'('問白-') 행위가 佛을 향한 것이고 佛을 향한 행위는 겸양되어야 한다는 懸吐者의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白-'이 포함된 하위문의 발화 주체가 佛임에도 불구하고 겸양법 선어말어미가 통합된 것이다.

현토자를 경어법의 중요한 요소로 보는 화용론적 원리에 의해 (10)(11)(12)의 특이한 '-白-'의 쓰임은 합리적으로 해명될 수 있다. 현토자를 고려하여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다루는 자료가 구결문이라는 특수성을 띤 것이라는 점에서 합당한 방법론이라고 믿는다.[10]

---

10) 박진호(1997 : 130-132)은 석독구결 자료의 내포문에 쓰인 특이한 '-白-'을 필자와는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숩-'이 화법 동사 '숣-'에서 온 것으로 볼 때, 내포문의 어미가 탈락되고 화법동사 '숣-'이 내포문 서술어에 직접 통합되어 문법화하면서 생겨난 과도기적 현상으로 특이한 '-白-'의 쓰임이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박진호의 가설은 나름대로의 그럴듯함을 갖지만 몇 가지 거듭된 추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4. 존칭의 조사와 어미

4.1 존칭의 여격 조사 '-ㅓ'(긔)

구역인왕경을 포함한 석독구결 자료에는 문장의 주어에 붙어 주어를 높이는 존칭의 주격 조사는 보이지 않는다. 석독구결이 사용된 시기에 아직 이러한 조사가 형성되지 않았던 것이다.

(13) 幻諦七 法ㄱ 佛ㅣ 出世ㅅ白ㅁ尸 無七ㄷㄱㅌ七 前ㅇㅓ 名字 無七ㅎ 義七 名 無七ㅎㅅ가 (舊仁 14:02-03)

주격 조사로는 'ㅣ'만 나타나며 존대의 주격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존대의 여격조사는 석독구결에서 이미 생성되었던 듯하다. 다음의 예가 그러한 것이다.

(14) 佛ㄱ 大王ㄹㅓ 告ㄷ尸 汝ㄱ [於]過去七 七佛ㅓ 已ㅎ 一ㅣ ㅌ七 義ㅇ 二ㅣㅌ七 義ㅇㅅ 問白ㅇㅅㄷㄱㅣㅁ (舊仁 14:20-21)

앞에서 본 (4)의 '佛ㅓ'도 이와 동일한 예이다. '七佛ㅓ'는 '칠불긔'로, (4)의 '佛ㅓ'는 '불긔' 또는 '부텨긔'로 읽을 수 있다. 석독구결에서 'ㅓ'는 처격조사로 쓰이지만 이 문장에서 여격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14)는 「부처가 대왕에게 이르기를 "너는 과거의 칠불에게(께) 이미 하나인 뜻과 둘인 뜻을 물었느니라"」로 번역되는 것이어서 여격으로서의 'ㅓ'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4.2 존칭의 속격조사 '-七'(-ㅅ)

중세국어에서 평칭의 무정물 체언과 존칭 체언 뒤에 속격조사 '-ㅅ'

이 통합함(약간의 예외도 있지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점은 석독구결 문법에서도 동일하다.

(15) 過去ㄷ 十千劫ㄷ 中ㅋㄷ 龍光王佛法ㄷ 中ㅋ十ㅅㅋ(舊仁 11:21). 十地ㄷ 行ㄴ(舊仁 3:19). 十恒河沙ㄷ 大衆ㅣ(舊仁 3:10). 八萬種ㄷ 音樂ㄴ (舊仁 3:05).

(16) 佛ㄷ 國土ㅋ十(舊仁 2:14). 佛ㄷ 座前ㅋ十 (舊仁 2:17). 七佛ㄷ 偈ㅣ(舊仁 14:23). 諸佛ㄷ 觀ㅈㅅ弋ㅣ分 菩薩ㄷ 觀ㄱ(舊仁 15:10).

(15)는 무정물 체언 뒤에 결합한 속격조사 '-ㄷ'이고 (16)은 존칭 체언 뒤에 결합한 '-ㄷ'의 예이다. 이러한 결합이 보여 주는 문법은 15세기의 경우와 같은 것이므로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

4.3 존칭의 호격 조사 '-下'(-하)

중세국어에서 존칭의 호격 조사 '-하'에 대응하는 것이 석독구결에 '-下'로 나타남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의 (3)㉢의 '世尊下'는 '대왕'이 세존을 존칭 호격으로 부르고 있는 예이다. 구역인왕경에는 '大王下'(14:12), '世尊下'(3:22)처럼 大王과 世尊 뒤에 '-下'가 통합된다. 화엄경소의 '大王下'(10:17), 금광명경의 '世尊下'(13:20)도 같은 성격의 예이다. 이러한 '-下'가 15세기의 존칭 호격조사 '-하'와 같은 것임은 명백하다.

4.4 존칭의 활용어미 '-下'(-하)[11]

구역인왕경을 포함한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특이한 사실 중의

11) 이 절은 백두현(1995 : 48-50)을 바탕으로 하여 최근에 논의된 것을 추가한 것이다.

하나는 'ᄉᆞᄆᆞᄒᆞ'와 같이 주체존대의 '-ᄆᆞ-' 뒤에 어미 '-ᄒᆞ'가 통합되는 점이다. 주체존대의 '-ᄆᆞ-' 뒤에는 항상 '-ᄒᆞ'가 결합한 'ᄉᆞᄆᆞᄒᆞ'로만 나타난다. 동사 어간 'ᄉᆞ-'에 어말어미 '-ᄋᆞ'가 직접 통합한 예(ᄉᆞᄋᆞ)는 있다. 그리고 '-ᄆᆞ-' 뒤에 '-ᄀᆞ'가 통합 'ᄉᆞᄆᆞᄀᆞ'와 같은 예도 혼하다. 이러한 통합상의 제약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ᄉᆞᄆᆞᄒᆞ'와 같이 '-ᄆᆞ-' 뒤에 통합한 '-ᄒᆞ'를 존대 표현 기능을 하는 활용어미로 본다. 존칭의 곡용어미(호격조사)가 존재하듯이 존칭의 활용어미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ᄆᆞ-' 뒤의 '-ᄒᆞ'를 존칭 활용어미로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ᄆᆞᄒᆞ'가 쓰인 문장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는 釋迦牟尼佛, 梵天과 諸天, 佛, 菩薩, 大覺世尊 등과 같은 높임의 대상이다.[12]

둘째, 문장의 주어가 존대의 대상이 아니거나 주체존대의 선어말어미 '-ᄆᆞ-'가 없을 경우의 어말어미는 '-ᄒᆞ'가 아니라 항상 '-ᄋᆞ'가 선택된다. 集會ᄉᆞᄋᆞ(舊仁 2:08), 歡喜ᄉᆞᄋᆞ(舊仁 11:11) 등 이러한 예는 매우 많다. 존대의 선어말어미 '-ᄆᆞ-' 뒤에 '-ᄋᆞ'가 통합한 'ᄉᆞᄆᆞᄋᆞ'와 같은 토는 발견되지 않는다.[13] 이런 사실은 'ᄉᆞᄆᆞᄒᆞ'의 '-ᄒᆞ'가 존대법을 표시하는 어말어미임을 뜻한다. '世尊'과 같은 존칭 체언에 존대의 호격 '-ᄒᆞ'가 통합된 사실과 존칭 주어의 동작을 서술하는 용언어미에 '-ᄒᆞ'가 통합된 것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것이다.[14]

---

12) 구역인왕경에 主語가 '大衆'인 다음 예가 보인다. 量 無ᄒᆞᆫ 菩薩ᄉᆞ 比丘ᄉᆞ 八部ᄉᆞ ᄂᆞᄆᆞᆫ 大衆ᄋᆡ 有ᄒᆞ나ᄒᆞᄆᆞᄒᆞ 各ᄀᆞ各ᄀᆞᄒᆞ 寶蓮花ᄋᆞᅀᆞᆫ 坐ᄉᆞᄆᆞᄀᆞ (舊仁 02:04). 이 문장의 주어는 보살, 비구, 팔부대중인데 이들이 모두 존대의 대상임은 후행절의 동사 '坐ᄉᆞᄆᆞᄀᆞ'에서 확인된다.

13) 그러나 'ᄉᆞᄂᆞ-'에는 '-ᄒᆞ'가 통합되지 않고 '-ᄋᆞ'가 통합된다. 修行ᄉᆞᄂᆞᄋᆞ(舊仁 14:23) 作ᄉᆞᄂᆞᄋᆞ(화엄 14;17:23). 'ᄉᆞᄆᆞ-'에는 존대의 어말어미 '-ᄒᆞ'가 통합되고, 'ᄉᆞᄂᆞ-'에는 비존대의 어말어미 '-ᄋᆞ'가 통합되는 사실은 '-ᄂᆞ-'가 '-ᄆᆞ-'와 같은 존대의 선어말어미가 아님을 의미한다.

14) 유가사지론에는 '名ᄒᆞ'(瑜伽 12;25:12 외 다수), '先ᄒᆞ'(瑜伽 12;07:06 외 다수)가 빈번히 나타나는데, '名ᄒᆞ'는 화엄경소에도 보이는 것이나 '先ᄒᆞ'는 유가사지론에만 보인다. 동사로 쓰인 '名ᄒᆞ'의 '-ᄒᆞ'는

이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ㅅ下'의 '-下'를 존칭 활용어미로 보고자 한다. 'ᄉᆞᄉᆞ下'를 15세기 국어의 'ᄒᆞ샤'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려는 견해가 있기도 하나 'ᄒᆞ샤'의 '-샤'와 'ᄉᆞᄉᆞ下'의 '-ㅅ下'를 연결시켜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석독구결에서 '-下'의 독음을 '-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설령 '-下'를 '-아'로 읽더라도 '-시아'의 축약형 '-샤'가 당시의 문법에서 가능한 것인지도 증명하기 어렵다.

5. 맺음말

구역인왕경 석독구결 자료에 쓰이는 주체존대법의 '-ㅅ-'는 15세기 정음 문헌에 나타나는 기능과 같다. 겸양법 선어말어미로 쓰인 '-白-'은 15세기의 그것과 동일한 것도 있고 구역인왕경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쓰임의 '-白-'도 나타난다. 후자는 통사론적으로 해명되지 않는 예이어서 필자는 경어법이 지닌 화용론적 성격을 근거로 현토자의 겸양 의식이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존칭의 조사로는 여격의 '-十'(-긔), 평칭의 무정물 체언과 존칭 체언 뒤에 붙는 존칭 속격 조사 '-ㄴ'이 있다. 후자는 중세국어 정음 문헌의 용법과 동일하다. 존칭 호격조사 '-下'가 쓰인 점도 역시 그러하다. 그리고 구역인왕경에서 '-下'가 '-ㅅ下'처럼 활용어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필자는 이 '-下'를 존칭 활용어미로 보았다.

'名'의 어근 '잃-'을 반영한 표기로 존대법과는 무관한 것이다. 한편 유가사지론과 화염경소에는 사동접사 '-ㅣ-'(-이-) 뒤에서 '-下'가 활용어미로 통합한 예가 몇 개 나타난다. 安住ᄉᆞㅣ下(瑜伽 12;24:06), '令ㅣ下'(화소 35;16:15). 이들은 사동사나 사동접사 뒤에 통합한 '-下'의 예인데,. 이에 대한 해석은 백두현(1995 : 49-50)을 참조 바람.

참고 문헌

고영근(1981), 『중세국어의 時相과 敍法』, 탑출판사.

김영욱(미발표), "전기 중세국어의 시상(時相)과 서법(敍法)".

박진호(1997), "차자표기 자료에 대한 통사론적 검토", <새국어 생활> 7권 4호, 국립국어연구원.

박진호(1998), <고대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연구 3, 국립 국어연구원.

백두현(1995),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경어법 선어말어미 '-ㅭ-'와 '-白-'의 분포와 기능에 관한 연구", <어문론총> 29호, 경북어문학회.

백두현(1997), "고려시대 석독구결에 나타난 선어말어미의 계열관계와 통합관계", <구결연구> 2집, 구결학회.

安秉禧(1982), "中世國語의 謙讓法 硏究에 대한 反省", <國語學> 11, 국어학회.

유동석(1993), "중세국어 주어-동사 일치",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안병희선생 회갑기념논총, 문학과 지성사.

이건식(1996),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助詞에 대한 硏究", 단국대 대학원 박사논문.

李丞宰(1991), "鄕歌의 '遣只賜'와 舊譯仁王經 口訣의 'ㅁㅏㄴ'에 대하여",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李丞宰(1996), "高麗中期 口訣資料의 主體敬語法 先語末語尾 '-ㅅ(겨)-', <이기문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 신구문화사.

全在寬(1958), '숩' 따위 敬讓詞 散攷", <논문집> 2, 경북대학교.